

부산체육

투투



부산광역시체육회

47873 부산광역시 동래구 사직로 77

TEL. 051. 500. 7900 / FAX. 051. 505. 6306

Copyright © 2014 Busan Sports Council All rights reserved

본 메일은 발신전용으로 회신이 되지 않습니다.

SEPTEMBER 2021 VOL.19

Busan Sports Council Magazine



영광의 주역

부산광역시당구연맹 상임고문

이종부 원로 인터뷰

노력의 땀방울

부산광역시배드민턴협회 회장

오치환 인터뷰

구·군체육회를 가다

낙동강을 휘감은 도시 북구,
생활체육으로 건강도시를 일구다!

북구체육회

CONTENTS



영광의 추억 부산광역시당구연맹 상임고문 이종부 원로

부산 당구의 서막을 연 레전드



노력의 땀방울 부산광역시배드민턴협회 회장 오치환

배드민턴으로 화합을 이끈다



구·군체육회를 가다 북구체육회

낙동강을 휘감은 도시 북구, 생활체육으로 건강도시를 일구다!



학교체육 탐구생활 부산동성고등학교 연식야구스포츠클럽

더 높이, 더 빨리, 더 신나게! 9회 말 2아웃의 짜릿함과 함께하는 즐거움



BSC 뉴스

2020 도쿄올림픽경기대회 참가 부산 소속 메달리스트 포상금 전달

도쿄올림픽경기대회 영웅들 '월드엑스포 부산' 홍보대사 위촉 추진 예정



부산 당구의 서막을 연 레전드

올해 춘추 66세의 당구 거장, 이종부 원로의 하루는 당구대를 잡는 것으로 본격 시작된다.

“당구는 평생 동안 해도 똑같은 공을 칠 수 없는 스포츠입니다. 몸으로 체득한 앞선 기억을 살려 변형된 모양을 만들어가야 하죠. 그런 걸 보면 인생과 참 닮았다고 할 수 있지요.”

이종부 원로는 대학입시를 준비하던 시절, 우연히 접한 당구에 매료되었다. 이후 35세 늦깎이 나이에 전문 선수까지 하게 되었다. 1981년도에는 부산당구경기연맹(현재 부산광역시당구연맹)의 초대회장을 역임하는 등 본격적인 당구 인생의 행보를 걷게 되었다.

영광의 주역

부산광역시당구연맹 상임고문

이종부 원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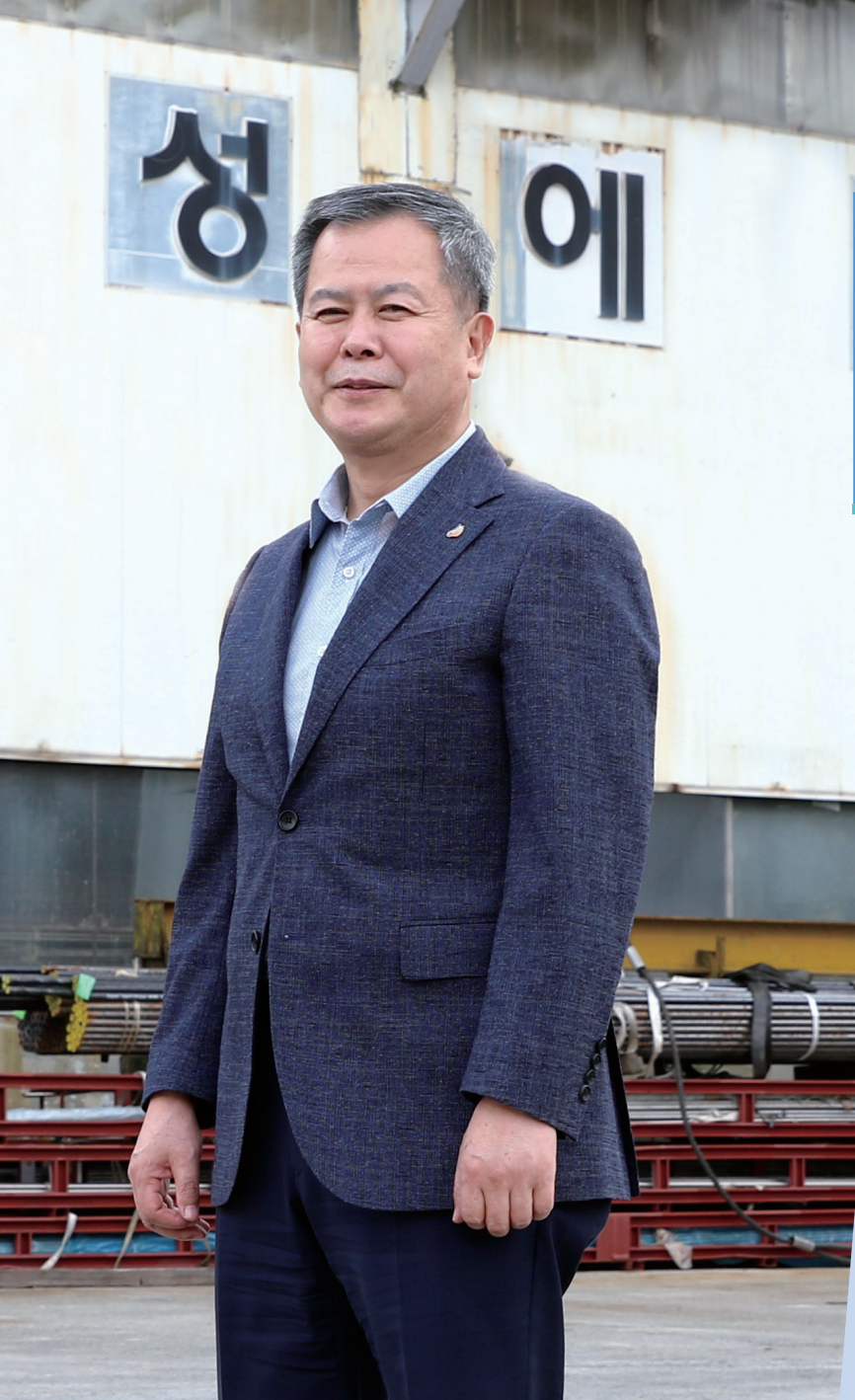
“당구는 본래 귀족적이고 신사적인 스포츠입니다. 지금은 부모 자식 간에 당구를 즐기는 이들이 늘었는데, 3대가 같이 즐기는 당구 문화를 조성하는 것이 제 작은 꿈입니다.”

그는 남녀노소를 불문하고 전 세대가 즐기는 스포츠로 당구를 자신 있게 추천했다.

“당구는 기본만 알면 그 이후부터는 개인의 몫입니다. 자기만의 공을 쳐야 하고, 데이터를 꾸준히 모아야 하죠. 높은 건물을 짓기 위해서는 깊이 파야 하듯 당구로 최정상에 가기까지 상당한 시간이 걸리는 만큼 조금해하지 않았으면 합니다.”

부산 당구의 역사를 새기는 데 큰 주축이 된 이종부 원로. 그는 당구의 길을 걷는 후배들을 위해 오랜 노하우와 당구인생을 풀어낸 책 집필을 준비하고 있다. 원로의 행보로, 135년여 대한민국 당구역사의 한 페이지가 다시금 두터워질 날이 기대된다.





배드민턴으로 화합을 이끈다

배드민턴은 경기 방식이 단순하고, 라켓과 셔틀콕만 있으면 남녀노소 누구나 즐길 수 있다. 그 덕분에 주말이면 공원에서 배드민턴을 치는 사람들을 적잖이 볼 수 있고, 실내 스포츠 센터에서 경기를 펼치는 동호인들도 많다. 한번 빠지면 쉽게 헤어 나올 수 없는 매력적인 스포츠, 배드민턴! 27년간 함께했지만 여전히 배드민턴이 좋다는 오치환 회장을 만나 보았다. 오치환 회장은 오랜 세월 배드민턴협회 부회장을 지낸 후 회장이 되었다. 영광스러운 자리를 맡게 되어 기쁘면서도 무거운 책임감을 느낀다며 그가 겸손하게 소감을 밝혔다.

노력의 땀방울

부산광역시배드민턴협회 회장

오치환



“부산광역시배드민턴협회는 전국에서도 운영이 잘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16개 구군이 모인 큰 단체임에도 하나가 된 듯 단합이 잘 되거든요.”

부회장 당시 오치환 회장은 전문체육과 생활체육의 통합에도 큰 역할을 했다.

“어느 때보다 서로간의 이해와 양보가 필요했어요. 다양한 방법으로 화합을 유도했는데 많은 분들이 진정성을 받아들여 주신 것 같아요.”

현재 전문체육과 생활체육은 통합을 이루어 폭넓은 활동을 이어가고 있다. 앞으로도 오치환 회장은 전문선수들이 운동에 전념하고, 누구나 쉽게 생활체육을 접하는 환경을 만들고자 한다. 또 부산에 배드민턴 전용 체육관을 지을 수 있게 밀거름도 만들 계획이다.

배드민턴에 대한 한결같은 마음으로 ‘나의 한 부분’이라고 말하는 오치환 회장의 행보는 오늘 보다 내일이 더 뜻깊을 것이다.



낙동강을 휘감은 도시 복구, 생활체육으로 건강도시를 일구다!

구·군체육회를 가다 복구체육회



2016년 통합된 복구체육회는 19개 정회원 종목단체와 2개의 인정단체 (220개 클럽, 8,100여 명)가 소속되어 있다. 복구체육회가 손꼽는 자랑거리 중 하나는 수려한 자연환경 속에 위치한 접근성 높은 체육시설이다. 복구에는 화명생태공원이 강변을 따라 자리하고 있으며, 야구장과 축구장을 비롯해 체육시설 11곳 등 생활체육 인프라가 풍부하다.





오대원 회장의 각오!

북구체육회는 낙동강변과 화명생태공원 등을 배경으로 다양한 종목의 체육 시설을 갖추고 있어 생활체육을 즐기기에 적합합니다. 이에 전통 민속놀이와 생활체육을 결합해 전문 체육(예: 씨름 등)으로 나아가는 프로그램을 개발 및 준비 중이며, 지역의 뜻깊은 향토문화 행사를 잇고자 합니다. 앞으로도 다양한 생활체육 활성화 사업과 동호인 활성화를 위해 전력을 다하겠습니다.

북구는 부산 내에서도 노령인구가 많아 고령화 속도가 빠른 지역으로 손꼽힌다. 이러한 핸디캡을 극복하고자 북구체육회는 파크골프와 어르신체육대회 등에서 큰 성과를 발휘하며 두각을 나타냈다. ‘부산시민체육대회 우승’을 연거푸 차지했으며, 2017년에는 ‘부산시체육회 우수단체’에 선정되는 영예를 안기도 했다. 또한 국제규격의 인공암벽장을 지난해부터 직접 관리운영에 나서는 등 더욱 많은 동호인과 구민들이 생활체육에 참여할 수 있도록 기존 체육시설을 정비하고, 부족한 체육시설을 확충하는 데도 두 팔 걷고 나서고 있다.

최근에는 ‘집콕 건강체조’ 영상을 제작·보급한 데 이어, 고대인도 병법 무술인 ‘카바디’라는 이색 프로그램을 온라인 콘텐츠로 제작해 주목을 받기도 했다. 코로나19로 활발한 대면수업이 어려운 시점이지만, 지역주민의 여가선용 및 삶의 질 향상은 이뤄져야 한다는 것이 북구체육회의 존립가치이기 때문이다.

더 높이, 더 빨리, 더 신나게! 9회 말 2아웃의 짜릿함과 함께하는 즐거움

학교체육 탐구생활

2019년 부산광역시교육감배
학교스포츠클럽 연식야구대회 우승

부산동성고등학교
연식야구스포츠클럽



부산동성고등학교 연식야구스포츠클럽은 2017년 첫 출전 이후 불과 3번째 대회 만에 우승을 차지했다. 점심시간이나 방과후, 동아리 활동시간 등 틈틈이 연습하는 내내 가르치는 교사부터 배우고 경기를 뛰는 학생도 즐겁고 열정적이니 좋은 결과가 따르는 건 당연지사. 코로나19로 인해 예전처럼 게임을 진행하기는 힘들지만 그들의 활동은 결코 멈추지 않는다.

인문계고등학교라 체육 활동에 집중하기 힘든 상황에서도 학생들은 코칭을 바탕으로 배팅과 캐치볼을 하며 열심히 하고 있다. 야구를 좋아하는 마음에서 모인 만큼 연습과 경기를 즐겼으면 한다. 또한 열심히 하다 보면 결과는 자연스럽게 따라올 것이라며, 목표는 언제나 최선을 다하는 것이라고 했다.



2020 도쿄올림픽경기대회 참가 부산 소속 메달리스트 포상금 전달

지난 8월 24일(화) 장인화 부산광역시체육회장 및 김용완 부산광역시펜싱협회장이 참석한 가운데 2020 도쿄올림픽경기대회 펜싱 여자 에페 단체전에서 은메달을 획득한 송세라(부산시청), 펜싱 남자 에페 단체전에서 동메달을 획득한 마세건(부산시청) 선수에게 포상금을 전달했다. 장인화 부산광역시체육회장은 앞으로 있을 국제대회를 위해서도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아끼지 않을 예정이다.

도쿄올림픽경기대회 영웅들 '월드엑스포 부산' 홍보대사 위촉 추진 예정

2020 도쿄올림픽경기대회 장인화 선수단장이 국민들에게 감사를 전하며, 선수들과 기쁨을 나눌 수 있어 대단한 영광이었다고 밝혔다. 또한 도쿄올림픽경기대회 영웅들과 엑스포 유치 방안을 구체화 하겠다고 "코로나19가 완화되면 대회를 치르느라 고생한 선수와 코치들을 부산으로 초청해 2030 월드엑스포 부산 유치에 대해 설명하고 협조를 구할 예정"이라고 했다.

부산광역시체육회 골드멤버

BUSAN SPORTS COUNCIL GOLD MEMBER

